

소신공양으로 불교탄압에 맞선 틱광득 스님

틱광득 스님의 소신공양 재구성한 소설 '분신' 출간... 미야우치 가쓰스케 작품

"1963년 남베트남 사이공. 불교를 탄압하는 남 베트남 정부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린해 오는 미국에 항의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한 승려가 있었다. 연꽃 같은 아시아의 사상이 과격하게 피어난다!"

이런 캡션과 함께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말콤 브라운(Malcom Browne)에 의해 촬영된 '1963년 세계의 보도사진'에 선정된 이 한 장의 사진에는 격렬한 불길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스님이 있었다.

때 마침 뉴욕 슬럼가에서 주는 신문에서 우연히 본 이 장면이, 얼어붙은 충격을 받은 일본인 작가가 있었다.

그리고 2002년, 또 다시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9·11테러였다. 초고층 빌딩이 불타며 푸른 하늘에서 무너져 내리는 영상을 보면서 작가의 뇌리에 다시 그 소신공양 사진이 되살아났다. 작가의 기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절, 가슴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스님을 알기 위해 작가는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다. 그가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애타게 회귀한 것은, 힘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시아의 송고한 사상이었다.

베트남의 '영원한 심장', '부처의 환생'으로 불리는 틱광득(Thich Quang Duc, 釋廣德) 스님의 소신공양 과정을 재구성해 소설화한 <분신>(토함)이 번역(김석희) 출간했다. 2005년 제56회 일본 '예술선장(選將) 문부과학대신상', 제57회 '요미우리문학상'을 수상한 이 소설에서 일본의 중견작가 미야우치 가쓰스케(宮内勝典)는 틱광득 스님을 취재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진실의 힘 보여준 주인공을 찾아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아프간 폭격이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던 나미야우치 가쓰스케는 학생들과 반전(反戰)데모로 나섰다. 학생들은 진지한 눈으로 묻는다.

"뭔가 믿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나 역시,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상이나 작가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그것은 간디, 그리고 베트남에서 분신자살한 X스님이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X스님의 자취를 더듬기 위해 나는 베트남을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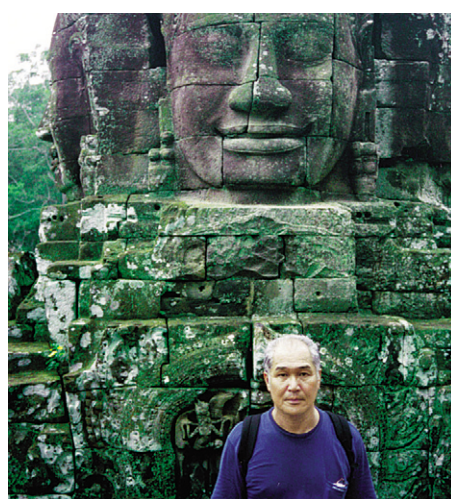
X스님의 이름은 틱광득. 그 이름만 들어도 눈시울을 붉히고 두 손을 모으는 베트남인들이 있는데, 그의 흔적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운 듯 쉽게 보이지가 않는다.

X스님이 분신을 할 당시, 열렬한 가톨릭 신자인 응오 딘 지엠 대통령과 그의 일가족이 베트남을



1963년 소신공양을 단행한 베트남의 틱광득 스님(말콤 브라운 작).

캄보디아 앙코르의트에서 취재 중인 미야우치 가쓰스케.



가톨릭교국으로 만들려고 불교를 탄압하고 있었다. 승려들의 부당체포와 고문, 그리고 학살이 이어지며, 비폭력으로 맞서 싸우는 불교도들의 희생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때, 틱광득 스님이 빙글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소신공양(佛身供養)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분신 보도를 접한 응오 딘 지엠 대통령의 재수인 마담 누는 비웃었다.

"중의 바비큐라니 재미있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이 분신을 연출한 스님을 찾았다.

"틱광득 스님의 죽음을 개 죽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 단 한 사람의 아시아인의 정신력으로 전 세계를 떨게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다."

나는 알고 싶다. 틱광득 스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법난 극복· 불교 중흥 발원한 원력보살

저자가 취재한 틱광득 스님의 일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틱광득 스님의 일생이 자세히 알려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은 1897년 베트남 중부 칸 화성 반린현 호이 칸 마을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람 반 팻(林文發). 일곱 살 때 양친의 뜻으로 출가했다. 스무살이 호안 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구엔 반 키엣으로 개명했다. 열다섯 살 때 사미계를, 스무 살 때 비구 및 보살계를 수계했다. 법명은 티 푸이, 법호는 틱광득이다. 그후 스님은 전심을 다해 불도를 닦아 딘 호아 산중에 승방을 마련해 3년간 홀로 수행했다. 그후 그는 이 산에 천륜사(天祿寺)를 창건했다. 하산한 뒤에는 시주를 받으며 홀로 베트남 각지를 편력한 후 2년만에 딘 호아의 천은사(天恩寺)로 돌아갔다.

1932년 '안 난 불교회'가 설립돼 하이독사의 장로스님이 호아불교회 지부의 도사(導師)로 초빙됐다. 거기서 활동하는 동안 스님은 14곳의 절을 건립하거나 복원했다.

1943년 베트남 중부에서 남부로 내려가 사이공, 자딘, 타이닝, 바리아, 하티엔, 카이라이 등지에서 포교하며 캄보디아에 당도했다. 3년동안 프놈펜에 머물며 베트남 불교도를 교화하면서 팔리어 경전이나 테라와다(상좌부)불교를 배웠다. 이후 베트남 남부로 돌아와 사이공시 3구의 룡빈사에 주석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룡빈 스님'이라고 불렀다.

1953년 남월불교회 부이사장과 의례위원장 직에 초빙된 그는 남월불교회 최초의 본부가 있던 포크호와사 주지에도 임명됐다.

1958년 남월불교회 본부가 싸리아사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그는 직책을 사임하고 각지를 돌며 포교에 나섰다. 그는 일생동안 31개의 사원을 건립하거나 복원했다. 마지막에 주지를 맡은 사원은 후뉴양구 구엔 웨 거리 68번지에 위치한 관세음사(觀世音寺)이다. 그 길은 뒷날 '틱광득 거리'로 개명됐다.

1963년 스님은 65세의 노령에도 불교도들의 투쟁에 적극 참여했고 단식을 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톨릭 정부의 탄압은 더욱 과격해지고 웨에서는 가슴 아픈 학살이 일어났다. 같은 해 5월 27일 통일불교회에 '소신공양 청원서'를 제출한 스님은 6월 11일, 스스로의 몸을 불살라 공양하겠다는 심원(心願)을 결행했다.

#대통령에게 종교평등정책 실행 호소

소신공양 일주일 전에 쓴 '심혈의 결심'이란 유서에서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가 고난의 때임을 보고 여래의 장자(長子)로 명명되는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 나는 불교가 멸망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이 한 몸 불살라 제불(諸佛)에 공양하고, 그리하여 불교를 지키는 공덕을 행할 수 있기를 기꺼이 청한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크신 은혜로 베트남의 승려와 불교도들이 테러, 구속, 감금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안락할 것을 기도한 스님은 가톨릭 신자인 응오 딘 지엠 대통령에게 종교평등정책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함께 발원문에 남기기도 했다.

"눈을 감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감히 응오 딘 지엠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밖에와 자비의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종교평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그리하여 영구적으로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국어판 소설 제목을 <소신(佛身)>으로 하지 않고 <분신(焚身)>으로 정한 저자는 틱광득 스님을 '부처의 환생'이라고 결론 짓고, <법화경> '약왕보살품'에 묘사된 소신공양(burning service)의 공덕을 인용하는 글로 중생의 고통을 대신해 열반한 현대판 보살의 원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안축을 깨는 햇불처럼 울바른 가르침의 백련(白蓮)은 모든 괴로움과 병, 윤회, 속박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생사의 대해를 건널 것이다."

현재 일본의 중앙일간지에 무저항주의의 상징인 간디의 일대기를 소설로 연재 중인 저자는1년간의 연재가 끝나는 5월경,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불자와 문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분신 | 미야우치 가쓰스케 저, 김석희 역 | 토함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buddhap5@hanmail.net



지혜의 검성엄 선사 말씀, 대성 율길(탐구사 펴냄) 1만3500원 <육조단경><신심명>과 함께 선가에서 가장 사랑받는 깨침의 법문을 담은 <중도가>와 <반야심경>을 대만의 고승 성엄(聖嚴, 1930~2009) 선사가 강요한 책이 나왔다. 성엄 선사가 1982~85년 네 번에 걸쳐 주재한 선철(禪七: 7일 단위로 계속되는 집중수행)에서 강설한 이 법어집은 당나라 때의 고승 영가(665~713) 선사의 깨달음의 노래를 통해 본래성품, 즉 불성을 발견해 삶이란 꿈에서 깨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성엄 선사는 "이 업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 순간을 명료하게 직감하면서 사는 것"이라며 "법을 직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직감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명료로 의식하며 불멸을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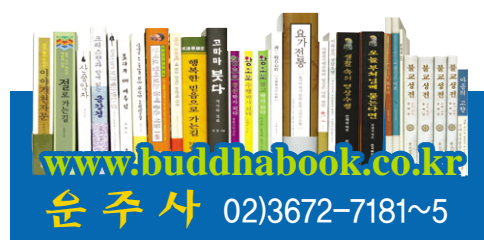
그대 돌아갈 곳이 있는가? | 경정 정사 지음 | 더북스 | 1만원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과 부딪치더라도 그를 수용하고 새로운 활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 즉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 돌아가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安住) 곳은 어떠한 장소나 사람이어도 좋다. 나아가 마음의 안식처이자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성품(本性)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가 쓴 <그대 돌아갈 곳이 있는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담임선생님 등으로부터 받았던 가슴 뭉클한 감동에서부터, 인도 델리대학교 유학시절의 단상 등 삶의 경험을 통해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상하며 사는 법을 일깨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시는 즐거움	보경	물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법정	문학의 숲
5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	솔바람
6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윤희	마음의 숲
7	인과경	현담	선
8	내 마음은 금부처	대행	한마음선원
9	날마다 웃는 법	법륜	김영사
10	금강경 이야기	김동규	금강경속회

*베스트불서 순위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3672-718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15권 출간! 양산, 향엄, 임제 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을 한 권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구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매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법인설립

간부 및 종도 입종안내

모든게 새롭고 차원높은 투명한 행정 방법으로 접근

- 모든 서식을 전산화로 행정, 종도와 회원관리, 재무재표, 수입과 지출, 사업계획서, 회의록등을 포도샷이나 프리젠테이션 작성으로 보존함.
- 우리조계종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비 법인종단 등을 통합 하고 각 사암 종도들에게 정보교류를 제공하여 근본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은둔생활을 벗어나 찾아가는 생활불교 실천으로 이 사회에 봉사 함.
- 매년 불교미술대전과 국제교류전 초대전, 해외문화탐방 등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발굴 양성으로 찬란한 우리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해 작가 회원 등 특을 권유 함.

입종안내

비구, 비구니, 법사, 작가스님 등.

재야작가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소, 도예, 공예, 불교미술 등

등록서류

본종 소정의 양식 이메일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대한불교우리조계종

법인설립추진위원장 人化堂 知道 外一同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3-3 미송사 총무원

☎(055)747-8006 팩스754-8004 / 010-5518-0108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창

8치, 1차, 1차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체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상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우루빈나기섭의 오백제자, 나게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매경)

불사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ترنت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